

<특 집>

## 세계문화유산 등록 과정과 전망

강 재 수

(문화체육부 문화교류과)

목차

- I. 세계 유산 등록 제도    III. 등록 이후의 과제  
II. 등록과정

### I. 세계유산 등록 제도

세계유산 등록 제도는 1960년대 후반 이집트 정부가 에스완담 건설을 강행하면서 비롯 되었다. 당시 이 댐의 건설로 인하여 기원전 13세기에 건립된 인류 문명사에 영원히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해야 할 귀중한 아부심벨 대신전 등이 영원히 수몰될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자 고고학적 등이 주축이 되어 이 유적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여 보존하자는 모금운동을 통해 신전을 다른곳으로 이전·보존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인류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현저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하여 유네스코가 관리하기 위하여 1972년 11월 유네스코 제 17차 총회에서 세계 유산 협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5년에는 유네스코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발족시켰다. 한국은 1988년 12월에 비로소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유적, 건축물, 장소 세가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적”이란 역사와 예술, 과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가진 기념비(記念碑), 동굴 생활의 흔적, 고고학적 특성을 지닌 건축물, 조각, 회화 또는 이들의 복합된 물건을 지칭한다. “건축물”은 건축술이나 주변 경관상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된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을 말하며, “장소”란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 공동의 노력의 소산물로서 역사적·심미적·민족학적·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을 지칭한다.

'95. 12월 현재 105개국에서 469건의 유산이 문화 및 자연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문화유산은 350건, 자연 유산 102건, 문화 및 자연의 복합 유산이 17건 등이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대표적 문화재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자금성·만리장성·황산·태산 등이,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일

본은 범람사 등이 각각 등록되어 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피라미드·룩소르신전,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델피의 유적, 인도의 타지마할 묘, 페루의 잉카 유적, 이탈리아의 고대 로마시(바티칸시티 포함)·피사의 사탑 등 세계의 우수한 문화재가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다.

- ( i ) 독특한 예술적성취(藝術的成就)를 대표(代表)하는 창조적 천재적 능력(天才的 能力)에 의한 걸작품(傑作品)이거나
- ( ii ) 한 시대(時代)에 걸치거나 어떤 한 문화(文化)를 공유(共有)하는 지역(地域)에서 건축(建築), 기념비적 예술(記念碑的 藝術) 또는 시가계획(市街計劃) 및 조경(造景)의 발달(發達)에 다대(多大)한 영향을 끼쳤거나,
- ( iii ) 문명(文明)에 대해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例外的)인 증거가 되거나,
- ( iv ) 중요한 역사적 단계를 밝히는 양식의 건물(建物)이거나 건축군(建築群),
- ( v ) 한 문화(文化)를 대표(代表)하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變化)의 충격으로 손실(損失)을 입을 염려가 생긴 전통적(傳統的) 촌락(村落)의 훌륭한 예(例)이거나,
- ( vi ) 뛰어난 세계적(世界的) 의의(意義)를 지닌 사건(事件)과 사상(思想) 또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또는 실체적(實體的)으로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위원회(委員會)는 기준(基準)의 이 항목(項目)은 매우 예외적(例外的)인 경우이거나 기준(基準)의 다른 항목(項目)과 연관시켜 적용시켜야 한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유산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엠블렌은 문화적 유산과 자연적 유산과의 상호 의존성을 상징한다. 즉, 가운데의 사각형 마름모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형상을, 그리고 밖의 원은 자연 환경을 나타낸다. 또한 이 엠블렌은 세계(지구)와 같이 등글다. 한편, 그것은 인류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산」임을 나타낸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산은 다음과 같이 유네스코로부터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공인하는 인증서도 교부받게 된다. 참고로 '95 한국의 등록된 3건의 유산 중 종묘의 경우를 지면에 게재하기로 한다.

중묘 세계유산 지정 인증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inscribed*

*the Chongmyo Shrine*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scription on this List confirms the exceptional  
and universal value of a cultural or  
natural site which requires protection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DATE OF INSCRIPTION

*9 December 1995*

DIRECTOR-GENERAL  
OF UNESCO

II. 등록 과정

세계 유산 등록 업무는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등록 과정을 회고해 보면 어 려웠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동등록 업무를 수차에 걸쳐 시

도 하였으나, 199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산 등록을 수차례에 걸쳐 시도해 오다가 1994년 우리정부가 국제화·세계화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1995년 12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3건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등록과정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1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록 계획을 수립·보고 하였다.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창덕궁, 수원 성곽, 삼년 산성, 무녕왕릉, 강진 도요지 등 문화 유산 8건과 설악산·한라산의 천연 보호구역 등 자연 유산 2건을 포함한 10건의 유산에 대한 잠정 목록(Tentative list)을 작성하고 석굴암 등 3건의 유산에 대하여는 지정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같은해 8월과 9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마침 1994년 6월 어느 날 파리에 있는 주유네스코 한국 대표부로부터 한 장의 반가운 전문이 날아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네스코 세계 유산 센터 문화유산과 프로그램 전문가의 한 사람인 A.Toellotto씨가 북경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차 귀로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이 우수하고 독창적인 문화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자문해 주었다.

1994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세계 유산 위원회 제18차 회의에 한국 정부는 동 위원회에 가입한 이래 최초로 공식 참가했다. 이 회의에는 필자를 포함한 임재홍 외무부 인권사회과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수영 문화부장 등 3명이 참가했다. 회의 기간중 우리 대표단은 유네스코 관계관을 비롯한 의장, 부의장과 일본·중국 등 대표들과 만났다. 이때마다 우리는 신청한 3건의 유산에 대한 세계 유산으로의 등록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차례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1995년 2월에는 우리가 제출한 3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과연 인류 공동으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파견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전문가 Nimal P. de Silva씨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Silva씨는 건축학을 전공한 스리랑카 대학교수로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방한 당시 Silva씨는 당초 우리 나라가 신청한 석굴암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인근 불국사도 함께 등록할 것을 권고하여 그 해 3월에는 신청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문화체육부장관 서신을 작성하여 첨부 자료와 함께 유네스코에 다시 접수시키기도 하였다.

1995년 7월 4일 9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유산 위원회 집행 이사회에서는 당초 한국 정부가 신청한 석굴암만을 심의하느냐 또는 불국사를 포함하여 심의하느냐 하는 문제로 이사국간의 이견이 있어 우리가 신청한 3건의 유산 중 석굴암을 제외한 2건만 등록에 포함시킬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마침 중국 대표인 장승례(張崇禮)씨의 도움으로 3건이 한꺼번에 심의될 수 있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아마 그 당시 중국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국사와 석굴암은 지난해 등록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각국의 대표와 잦은 접촉을 갖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독일 베를린 세계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 유산위원회는 우리 문화재 3건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는 중요한 회의였다. 따라서 회의에서 월 대표단의 문화 외교 역량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어,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의 김현곤 대사를 단장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김진무국장 과 본인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원식 경주시장 일행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허권 문화홍보부장, 주베를린 총영사관에서는 신영훈 영사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베를린 주재 언론사 등 특파원들과 잦은 접촉을 통하여 현지 회의장의 분위기를 우리 나라에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했다. 회의 시작 당일부터 세계 유산 센터 관계관을 비롯한 이사국 대표들과도 수차례에 걸친 접촉을 통하여 우리가 신청한 문화유산 3건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12월 6일 3건이 무사히 등록될 수 있었다. 또한 회의 개최지인 베를린은 마침 우리와 같이 분단국이었던가 90년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옛 수도로 민족 분단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곳이라 생각되었다. 그곳은 겨울철이라 매서운 날씨에다 폭설까지 내려 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고, 귀국 전날에는 공항이 일시 폐쇄되기도 하였으나 우리는 예정된 일정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회의 기간 중 유네스코 세계 유산 센터의 최고 책임자를 초청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세계 유산 위원회의 최고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 von Droste씨를 초청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한 결과 초청에 응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 III. 등록 이후의 과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는 문화재의 훼손 방지와 영구 보존을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또는 ICOMOS[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유네스코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된 문화재는 유네스코 발간 각종 간행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소재 지역이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문화재가 세계 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국내법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 관련 국제 기구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의 보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보존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하며, 보존 관리 제도와 보존 기술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위해 유네스코 산하 관련 기구인 ICCROM, ICOMOS, IUCN 등 국제적인 규모의 회의 등을 적극 유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인적·학술적 교류는 우리 문화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기술 원조 및 재정 지원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95년도에는 세계 유산 위원회에 2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한 바 있으며, '96년 5월에는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이 파리 유네스코 예방시 10만불의 기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등록된 문화재의 소재 지역이 국내의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홍보대책도 마련,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등록된 문화재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일치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문화재 보호 운동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또는 뜻있는 개인과 기업체 등이 함께 문화재 애호 운동 및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할 때만이 우리 문화재는 더욱더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 등록이 무사히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모든 분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이었다. 한글판 원고의 초기 작성에 참여하여 주신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윤홍로·문영빈 위원과, 현재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박상국 실장 등과, 영문 원고의 작성에서부터 교정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조언해 주신 한국 ICOM의 백승길 회장과, 공연 윤리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한철모 위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장경호 전 소장 및 김봉건 실장께도 감사드린다. 본 등록을 위해 처음부터 등록되는 그 순간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무 당시 문화재관리국 국장과 유형문화재와 김종혁 과장 및 동료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